

## 자가 대퇴사두건을 이용한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의 결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성상철 · 이명철 · 이상훈 · 조현철 · 박윤근

### 목 적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시 이식물로서 이용되는 자가 대퇴사두건은 생역학적으로 우수한 면을 보이는 반면 대퇴 사두근의 근력약화, 이로 인한 슬개골 불안정성 등이 우려되고 있기도 하나 이에 대한 보고는 빈약한 편이다. 대퇴사두건을 이용한 관절경적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의 임상적 분석을 하고자 하였다.

### 대상 및 방법

1999년 2월에서 2002년 2월까지 본 교실에서 대퇴사두건을 이용한 관절경적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은 환자 중 1년 이상 추시가 가능하였던 122례를 대상으로 하였다. 수술 방법은 근위 전방 슬개골과 이에 부착된 폭 10 mm, 두께 7~8 mm, 길이 6-8cm의 대퇴사두건을 이용하였으며, 평가는 관절 운동 범위, 전방 전위 정도, Cybex II를 이용한 근력측정, 전방슬관절 동통 등에 대한 임상적 평가와 방사선 사진을 이용한 슬개골 위치 변화 등을 측정하였다.

### 결 과

연령은 평균 29세였으며 추시는 1년에서 4년 1개월까지 평균 31개월이었다. 평균운동범위는 술전에 비하여 변화가 없었으며, Lachman test, anterior drawer test, pivot shift test상 3도 이상의 전방불안정성이 4례에서 관찰되었으며 KT-2000 arthrometer를 이용한 최대 전방 전위 정도의 견측과의 차이는 술전 7.0 mm에서 술후 평균 2.6 mm으로 감소하였다. 대퇴 사두근 근력은 술전 견측의 75%에서 술후 6개월에 견측의 54%, 술후 12개월에 81%, 24개월에 89%로 변화하였다. Lysholm score는 술전 72점에서 술후 90점으로 증가하였다. 일상생활에서 경도의 전방 슬부 동통이 4명에서, 무릎을 꿇을 경우 5명에서 관찰되었으나 술후 새롭게 발생한 동통은 2명에 그쳤고 공여부의 자극이나 압통은 관찰되지 않았다. 슬개골의 종골절이 1례에서 있었으나 보존적으로 치료되었다. 방사선 사진에서 Insall ratio는 술전과 술후 모두 1.0으로 변화가 없었으며, 일치각도 술전 7.9도에서 술후 7.4도로 의미있는 변화는 없었다.

### 결 론

자가 대퇴사두건은 관절경적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에서 만족스런 임상적 결과를 보였으며 공여부의 이환은 근소하여 우수한 이식재료로 사료되었다.